



사파기금 15주년 자축연 & 25회 사파포럼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
(2011-2026)”

2026.07.25(토)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행사 프로그램 안내

오후 2:00 개회선언 (사회: 김수미 운영위원)

민중의례

인사말 - 15주년을 맞으며: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부. 25회 사파포럼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 (2011 - 2026) (오후 2:05)

(사회: 김동성 노동위원)

기조발언: 권영숙 대표 (사파기금 최초 제안자)

“연대와 투쟁의 굴곡과 진퇴의 시간들”

이야기 손님: 이재형(삼표시멘트 노조),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안준호(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신유아(문화활동가)

휴식

2부. 15주년 자축연 (오후 4:00)

사파기금의 노래 <희망가> 제창

15주년 자축 케이크 점화와 건배사

공연: 박준 가수

사파기금 연대자들의 축하의 말

폐회 선언 (오후 5:20)

폐회가 <인터네셔널>

단체촬영

◆ 기 조 발 언 ◆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2011 - 2026) - 연대와 투쟁의 굴곡과 진퇴의 시간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안자, 그리고 지금은 대표를 맡고있는 권영숙입니다. 사파기금이 시작된지 어언 15년이 되고 오늘 15주년 기념 자축연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파기금이라는 운동을 제안했을 때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기실 이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투쟁과 노동운동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파업기금도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희망버스의 서울 상경길에 동행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파업기금'이라는 말조차 생소하여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반응은 좋았습니다. 1주일을 고민한 후에 2011년 7월19 일 타오르는 붉은 노을을 보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제안문"입니다. 아니 제안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파기금의 첫번째 특징입니다. 사파기금 초기에 꽤 자주 거론되던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된다"는 모토는 이렇게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희망버스 도상에서 시작된 것이 사파기금입니다. 파업기금 없이 파업을 시작한다면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희망버스라는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연대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연대를 위해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로 사파기금의 두번째 성격입니다.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기. 그것도 공공연한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 점에서 사파기금은 이전의 노동관련 기금들, 즉 노동연대기금, 상생기금과 다릅니다. 이 기금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봅니다. 또 2011년 비슷한 시기이 출범해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등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연대활동등을 목표로 해고 통지봉투의 색을 딴 '노란봉투' 기금 캠페인을 펼친 '손잡고'와도 다릅니다. 정리해고는 철폐해야하고 이를 위한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처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이 유명무실화되고 짓밟히는 사회에서, 어떻게 파업기금을 공공연히 사회적으로 모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을 '희망기금'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파업기금입니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서유럽에서 등장한 노동계급은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는 자본의 '업'을 파하는, 즉 파업이라는 수단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업기금 (strike fund)를 모았습니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가 일정 기간 유지될 파업기금이 모이면 그들은 공장의 기계를 멈추고 공장 문을 뛰쳐나오거나 점거파업을 했습니다. 노조가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노동조합보다 파업이 먼저였고, 파업기금이 먼저였습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무기였고 집합행위였습니다.

그 계급투쟁의 역사와 전통이 한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워낙 파업 자체가 불가능한 한국 사회에선 파업에 대비한 국가의 법과 제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87년 민주화이행 이후 신생 민주노조들도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자본과 국가의 동맹체제가 제도적인 허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섰고, 가장 먼저 법원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법리밖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리고, 국가와 정당들이 97년 노동법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국가의 대응에 비해 조직화된 노동은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쟁의기금'이나, 노조 조합비중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비정기적으로 분배합니다. 과연 파업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는 노동자부대가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파업기금은 노동계급이 자신을 파업하는 주체로 정립하는 자기 선언이자 주체적인 준비과정입니다. 파업은 '준비된 전술'이어야 합니다. 해서 자본주의 초기 서유럽의 전투적 계급투쟁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주체로서 파업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와 별도로 '파업기금'을 먼저 조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노조운동은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채, 파업을 시작한 많은 노동자들이 '돈'앞에 굴복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의 제단'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형사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가압류등의 팩키지와 결합하여 급기야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완전히 유명무실화하는 기제로 공고화되었습니다.

사파기금의 모토이기도 한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는 "손배가압류에 맞서는 사회적 파업기금"을 의미합니다, 손배가압류는 2000년대가 아니라 민주화이행 이후 80년대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초기에는 자본과 합의로 손배가압류를 피하였거나 노조 스스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제도적 방책과 준비의 부족 상태에서 비정규 노동자투쟁이 2000년대초 시작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격심한 고통을 겪었고, 노동자들이 분신하거나 자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2015년을 즈음하여 노동부가 손배가압류 자료를 취합하고, 민주노총이 손배가압류 사업장 리스트를 작성하는등 사회적인 이슈화가 뒤늦게 되었습니다.

사파기금은 2011년 제안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손배가압류에 맞서기 위한 사회적 파업기금을 제안했습니다. 요약하면 파업기금의 조성은 준비된 파업을 향한 계획이며, 노동자투쟁은 준비된 파업일 때 승리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고, 이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대와 결합할 때 더욱 강한 사회적인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스스로 파업기금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파기금

15년, 연대운동 15년"이 된 2026년에도 이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고, 아직 미완성의 도전적 과제입니다.

2. 사파기금의 단계별 활동

사파기금의 활동 연혁은 연도별 연보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연보에 게재된 활동 연혁을 기초로 사파기금 연대운동사(2011-2026)를 단계별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초기 (2011.7.22.- 2014)

자생적이고 즉각적인 연대에서 지속가능한 연대운동으로

사파기금은 2011년 7월19일 페이스북에 제안서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면"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장짜리 아이디어는 '제안서'가 되었고.

페이스북에 권영숙 제안자가 올린 제안은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7월22일 통장이 개설되고 첫 입금이 되었습니다. 해서 7월22일이 사파기금의 발족일로 여겨집니다.

이후 사파기금은 취지에 동의하는 이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페이스북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그룹'을 만들고, 이 그룹을 홈페이지로 삼아서 매일매일 기금 입금액을 공개하는 특이한 방식으로 연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달만에 2천만원의 사파기금을 당시 투쟁중이던 한진중공업정투위에 보냈습니다. 이후 "돈이 모이는데로 노동자투쟁에 보내기"는 사파기금의 지원방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자투쟁에 필요하다고 판단시 즉각 집행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개인과 상급단체가 아니라 직접 현장투쟁하는 투쟁단위에게 연대하기등을 경험속에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금 지원액은 초기에 2천만원의 큰 액수도 여러번 있었지만, 차차 더 많은 투쟁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1천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지원뿐 아니라 소액지원, 물품 지원등도 시작하였습니다. '희망뚜벅이' 활동에 방한품 연대, 핫팩 배포는 연대활동으로는 처음 시작된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털실을 모아서 '희망토시' 짜기, '희망돼지' 키우기등도 연대자들의 아이디어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기금지원명단 참조

2) 2단계 (2015-2019)

치열한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 - 현장연대의 강화

2015년부터 2018년은 사파기금이 가장 활발하게, 치열하게, 빈번하게 지원 연대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파기금의 조성액도 계속 멈춤없이 증가세였기 때문입니다.

연 7-10회 파업기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파업기금을 지원할 곳들을 자체 선정하므로 이 자체가 큰 일이었을뿐 아니라 노동자투쟁에 대한 민감도와 투쟁에 대한 많은 경험치들이 쌓였습니다.

또한 기금연대와 함께 '작은희망버스', '사파동행'등 현장연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강화하여, 연 5-6회까지 쉼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상근자없는 자원활동가들의 모임이 진행하기엔 턱없이 많은 사업과 활동이었고, 회의를 열고 연대물품을 비치할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사파기금 활동가들은 활발한 연대운동을 펼쳤습니다.

사파기금 연대가 폭증한 이유는 당시 민주노총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한채 비대위체제로 계속 표류했고 민주노총과 연맹들의 투쟁 지지와 엄호가 부족한 가운데 고립된 투쟁을 펼치는

노동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유일한 사회적 연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라는 모토로 '파업기금'을 상시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연대운동을 펼친 사파기금의 '준비된 연대'가 가장 빛을 발한 시기였으며, 이는 2016년 박근혜 퇴진을 가장 먼저 구호로 외친 '노동자공동투쟁'과 2017년 박근혜 퇴진직후 '광화문 고공단식투쟁'의 결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이제 발족 10년을 앞둔 단체로서는 내부 정비와 재생산의 채비를 하지 못한 채 노동자투쟁에 전력투구한 시기였기도 합니다.

3) 3기 (2020년이후)

변화하는 정세와 노동자 투쟁의 격감 속에 새로운 모색

2018-9년을 정점으로 이른바 '장기투쟁사업장'들의 투쟁이 줄이어 정리되었습니다. 이 정리과정은 많은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비대위 체제를 벗어나면서, 조직노동으로부터 원심력이 일부 작동하던 노동자투쟁도 독립성을 점차 잃고 조직노동 산하로 흡수되었습니다. 또 2011년 희망버스운동이 조직노동 밖의 '노동연대자들'의 자생적인 운동이었다면 이제 희망버스는 조직노동이 시민을 동원하는 연대로 변질되는 등 조직노동과 사회적연대의 관계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제도화, 그리고 노동자투쟁의 승리의 전망 약화 속에서 파업투쟁이 격감합니다. 이 역시 많은 문제기를 제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사회적 연대활동과 현장 연대 자체가 국가에 의해 봉쇄되기도 하고 모든 사회운동과 연대가 축소되었습니다.

사파기금 역시 이 시기에 파업투쟁이 격감하는 가운데 '사회적파업기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체제전환 시도와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제도화 속에서 정세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모색을 시도합니다.

또한 사파기금은 팬데믹 앞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연대활동을 고민하면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을 하고 기금조성과 연대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학습, 교육선전, 사상적 기초 연구등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다시 재개하여 코로나19 가운데 2022년 3기학교를 열기 시작해 2025년 6기 학교까지 개최하였습니다.

* 연도별 연보: <https://sapafund.org/?cat=350>

2011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시작하다
2012년 : “만원의 기적” 1만인 계좌 운동을 시작하다
2013년 : 노동이 말하다 ‘사파포럼’
2014년 : 새로운 현장 연대 ‘사파동행’
2015년 : 찾아가는 지역 연대 ‘사파의 작은 희망버스’
2016년 : 사파기금-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 기금 지원 9차례
2017년 : 사파 분실, 도약을 위한 보금자리
2018년 : 치열한 전국 현장 연대
2019년 : 노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2020년 :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제안하고 조성하다
2021년: 새로운 사무실, 새로운 10주년을 준비
2022년 : 격월 소식지 <사파동행>을 첫 발행하다
2023년 : 사파기금의 결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발족하다
2024년 : “절망을 직시하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모읍시다”

2025년 : 계엄탄핵광장을 넘어 노동의 사회적연대를 향한 새로운 목소리

3. 지향과 딜레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동맹과 변혁의 주체 구성에 기여

하지만 이 지향과 목표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포부는 현실적 조건이 한계가 되고 딜레마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사파기금 연대15년 앞의 장애일뿐 아니라 '노동연대운동사 15년'이 당면한 현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다음 3가지 딜레마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 개별투쟁과 전체 투쟁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기투쟁사업장들은 모두 긴 투쟁 끝에 스스로 정리하였습니다. 새로 분출한 노동자투쟁은 장기투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알뜰한 회유와 교섭 조건에 응할 것인가라는 기로에서 선택에 직면합니다. 후자인 투쟁을 선택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하고, 장기투쟁끝에 노동자들은 '끝장투쟁'을 하지만, 이는 이전의 장기투쟁사업장들의 경우처럼 '정리하는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투쟁을 끝내고 나면 노조의 조직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현장에서 노조로서 최소의 생존을 유지하기도 급급합니다. 사실 자본은 투쟁하는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의 상태가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교섭하고 합의하고 현장에 발을 디게 합니다. 자본은 이미 사업장 내에 대부분 복수노조 체제를 만들어두고 있으며, 장기 투쟁 속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한 상태에서 '민주노조'는 복귀하자마자 '소수노조'가 됩니다.

결국 관건은 "one for all all for one" 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를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화하는가입니다.

이 구호는 산별화의 정신이자 구호일뿐 아니라 개별 투쟁과 연대에도 해당합니다. 하나의 노동자투쟁을 개별화하지 않고 '모든 노동'을 위한 투쟁으로 간주하는 것, 각 개별 노동자/투쟁을 위해서 모두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 즉 하나의 제대로 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모두의 힘이 필요하고 조직된 노동 전체의 엄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조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전투성은 물론이고 '운동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조운동이 아니라 '조직노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들의 계급성, 운동성이 약화되고 '평조합원 민주주의'가 실종될수록 '정상조직'인 민주노총의 관료화 부후화를 방치하게 됩니다. 다시 관건은 민주노조의 운동성 회복과 민주노총의 혁신입니다. 민주노총이 단지 노정교섭을 위한 내셔널 센터일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투쟁의 진두 지휘본부로서 기능할 있도록 혁신이 가능한가입니다.

2) 투쟁과 운동의 괴리

투쟁과 연대가 운동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투쟁을 하면 할수록 운동으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똑같은 투쟁을 반복합니다. 투쟁과 운동이 괴리되고, 하나의 투쟁이 전체 노동운동의 힘으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쟁의 구호가 오히려 운동의 침로를 흐리고, 투쟁의 요구조건이 애초에 그 운동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아주 소수의 투쟁 승리조차 운동적인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투쟁을 3년, 5년, 10년이상을 한 노동자들이 '계급적 노조운동'을 위한 선진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년간 연대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구호가 "정리하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였습니다. "정리하고 철폐"는 "원직복직" 혹은 "일단 복직"으로 정리되었고, "비정규직 철폐"는 "정규직 전환" 투쟁이 되었습니다.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의 목표와 요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과는 있습니다. 투쟁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대부분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의 경우만).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되었고 이들은 선배들로부터 '학습'받아서, 이젠 투쟁보다는 근로자파견법을 인정하면서 그 법의 불법성을 다투는 법률소송에 집중합니다. 비정규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자본은 직접고용 촉탁직과 이주노동자들로 채우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은 이제 이중화가 아니라 다중화되고 있습니다. 또 정리하고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적인 패키지의 일부라고 보지만, 정리하고 조항은 아예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투쟁 승리라고 할 수 있으며 설사 투쟁 승리했다고 해도, 운동은 승리했습니까? 투쟁의 구호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이 질문들을 다시 던집니다. 이에 답하려면 현재의 노조운동의 조직노동화, 제도적 포섭, 계급정치적 대안 찾기 포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소위 가능한 목표란 이름하에 투쟁의 구호와 목표가 괴리를 빚고, 나아가 '허구적 구호'를 남발하면 당연히 투쟁의 승리가 운동적 의미를 가지는 데 한계가 있고, 투쟁이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투쟁이 되지 못합니다. 즉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는 두번째로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에 돌입합니다.

3) 투쟁과 연대의 괴리.

사파기금은 3주년 토론회에서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에 대한 긴장을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파기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돈만 많이 조성해서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연대만 해주세요"라는 말을 거침없이 토로했습니다. 아, 이것이 '사회적 연대'일까요? 연대자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하여야 할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노동자투쟁은 '당사자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노동자 연대를 '노동하는 이들의 수평적인 연대'로 보지 못하고, 도구적으로 바라봅니다. 연대자들은 주관적이고 개별화되고 (개인주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되기에 불안정합니다. 투쟁과 연대는 이중주이긴 한데, 여전히 병렬적 혹은 산술적 합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위의 모든 딜레마는 사파기금의 지향점 3가지를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로 만듭니다.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새로운 우리를 구성하는 계급적 주체의 정립, 노동자투쟁을 넘어 사회적 총파업의 전망을 가진 민중적 동맹과 힘의 형성. 사파기금은 아마도 첫번째 과제에 필요한 마중물일 것입니다. 지난 15년 사파운동 15년 연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길을 아는 것이다".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사회적 연대를 사회정치적 동맹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의 문제의식,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된다"는 실천력, 비판 속에서 낙관을 잃지 않는 "희망을 모읍시다"를 구체화하면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동안 사파기금과 함께 연대 15년을 꾸준히 실천해오신 연대자 여러분께 반갑사다는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15주년 자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6. 7.25. 권영숙 대표 (기금 최초 제안자)

◆ 사회적파업기금 제안문 ◆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면……

제안자 Young-sook Kweon

2011년 7월 17일 일요일 오후 8:57 (출처: 페이스북)

파업기금을 아는가?

대체로 서구 노동 운동사에서 노조 운동이 본격화 되고, 전국화, 산별화 되면서, 파업기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월 단위로 받아서 비축해 둔다. 그리고 일정한 파업기금을 모으고 파업한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고 스스로 기계를 멈추더라도, 파업에는 돈이 필요하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굶을 순 없으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별도로 파업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노조와 노동계급이 자신을 '파업의 주체'로 의식하고 파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준비된 파업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 파업기금이 낯설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노조들은 파업중 '무노동 무임금'에 맞서 싸우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각자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은 채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제도화됐고, 준비되지 못한 파업의 결과는 비참했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손해배상 청구등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신종 탄압 수단이 되었다. 갈수록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본,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 국가의 노동 배제와 친자본적인 태도 속에서, 한국적인 노동현상이 돼버린 장기 파업, 그리고 장기투쟁 사업장들에서 이는 특히 큰 문제였다. 한국의 노동은 파업을 하기 위해 죽음의 제단앞에 자신의 목숨을 저당 잡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 쌍용자동차의 사례가 그랬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6개월여의 파업 중, 이들의 인생은 이미 절단났다. 이 과정에서 4백여명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떠나고 끝까지 남은 조합원들은 100여 명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조지회장 채길용의 야합적 '직권합의' 같은 일도 벌어졌다. 그런 것이다. 하지만 파업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이 아닌가, 살던 삶마저 멈춰야 하는가. 파업하는 노동자들 그들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 시민들이다. 그리고 돈은 이들의 피를 말린다.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뿐 아니라 돈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야말로 사회적파업기금을 조성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한진중공업 파업을 지지연대하며 희망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파업기금'의 조성에 함께 나서길.

일부에서 이미 한진중공업노동자가족대책위 후원기금 모금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를 확대해서, 노동에 대한 이 사회의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한 강한 긍정의 표시로,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의 구성에 나서길.

연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희망버스를 타자고 한다. 그러나 부산 영도로 가는 희망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고공농성중인 김진숙에 관심을 가지는 그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를 지지하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를 안타까워 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이보다 많으리라, 지난 7월초 희망버스를 탄 1만여 명보다는 많으리라. 아니, 그렇다고 굳게 믿고 싶다.

이제 오는 7월 30일 3차 희망버스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연대를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간 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배제된 노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서 나의 피같은, 내 노동의 결실인 금전으로 그들의 파업을 지원하자. 돈의 철학을 새롭게 쓰기 시작하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자.

노동이 돈 앞에서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 페이스북 '사회적파업연대기금'그룹에 올린 제안문 ◆

(2011. 7. 22. 오후 6시 13분)

○ 왜 파업기금인가?

노동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합니까? 1987년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된 노동배제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가 물고온 신자유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실상 거세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돈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파업기금이란 말은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이란 새로운 조항에 맞서 싸우는 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개별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그럴듯한 이미지의 이 표현이 사회 전체를 휘감아 버리면서, 파업 중인 개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오직 그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닙니까? 그들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입니다.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추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8년 전 김주익이 자신의 아들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그 절절한

부정처럼.....

하지만 이 땅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음에도, 결국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에서도 유성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칼날이 되어 노동자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과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이 파업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습니다. 그들을 힘없이 스러지게 했습니다.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의 파업중 정리해고에 맞섰던 이들의 인생은 이미 절단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남은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담보한 이 파업 내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선 이 기나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싸움의 전선에 있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을 '악마의 금전'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파업기금입니다.

○ 왜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인가?

언론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행태! 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버스'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연대를 증명하였고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자본 편들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과 맞잡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글거리는 뽕약벌 아래, 그리고 85호 크레인 위에서 반년째 외롭게 싸우고 있는 김진숙 위원과 조합원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회적 연대만이 노동자들을 절망속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는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고공농성중인 김진숙과 그를 엄호하며 투쟁하는 한진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증거로써 우리는 '사회적 파업 연대 기금(일명 진숙85 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자들과 손잡은 우리 사회 저항의 상징이자 연대의 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1,2차 희망버스를 탄 사람들만이 85호크레인 위의 김진숙에 관심을 가진 그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한진사태를 안타까워하고,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동안 희망버스를 탈 수 없었던 이 땅의 구성원들은 이제 다양한 연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이 사회, 이 민주주의로부터 배제됐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표시로서 나의 피같은, 내 노동의 결실인 금전으로 그들의 파업을 지원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분간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은 희망버스 기획단을 꾸리고 있는 '비없세'(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의 창구를 이용해서 파업기금을 모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기금과 그 가족들의 생계지원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염원하듯이 김진숙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자신의 두 발로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의 85크레인 계단을 내려오는 날, 그때 우리는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을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희망을 볼 것입니다.

◆ 기금지원명단(소액지원 제외) ◆

기금회차	기금지원일	지원조직 (지원사업장)
1	2011년 7월 29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가대위
2	2011년 8월 11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3	2011년 11월 11일	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4	2011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5	2012년 2월 2일	희망뚜벅이 방한품 지원
6	2012년 4월 19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7	2012년 6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8	2012년 7월 15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9	2012년 8월 3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분쇄 노동자 공동행동
10	2012년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고속지회
11	2012년 11월 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2	2012년 11월 2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3	2013년 1월 4일	장기투쟁사업장 방한품 연대
14	2013년 2월 10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15	2013년 2월 11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6	2013년 3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17	2013년 3월 29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18	2013년 4월 29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9	2013년 5월 2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20	2013년 6월 26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
21	2013년 8월 16일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원회
22	2013년 10월 2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23	2013년 10월 31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
24	2013년 11월 28일	스타케이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5	2014년 1월 9일	공공운수노조 강원버스협의회 진흥고속지회
26	2014년 1월 16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27	2014년 2월 21일	발레오만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8	2014년 3월 31일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29	2014년 4월 16일	금속노조 KEC 노조지회
30	2014년 5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부

31	2014년 6월 22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2	2014년 7월 10일	스타케미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33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34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
35	2014년 9월 6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6	2014년 9월 24일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37	2014년 11월 21일	침낭연대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앤엠, 코오롱, 재능교육, 스타케미칼, 공공 공무직노조, 세종호텔, 한남운수, KEC 노조, 경산이주노동센터)
38	2015년 2월 4일	노동자공동투쟁단
39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회
40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지회
41	2015년 5월 16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현장위원회
42	2015년 5월 16일	공공운수노조 부산택시지회
43	2015년 6월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44	2015년 7월 4일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45	2015년 8월 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46	2015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47	2015년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48	2015년 11월 3일	침낭연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콜트콜텍, 풀무원, 하이드스, 동양시멘트, 청주시노인병원, 아사히글라스, 유성기업, 부산 생탁 택시 농성장)
49	2015년 11월 5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50	2015년 12월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비정규직지회
51	2016년 2월 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52	2016년 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53	2016년 3월 17일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공투단
54	2016년 5월 11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55	2016년 6월 10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잡'
56	2016년 6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드스지회
57	2016년 7월 22일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노동자
58	2016년 11월 5일	갑을오토텍 노조
59	2017년 1월 11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0	2017년 3월 1일	금속노조 KEC 지회
61	2017년 3월 20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2	2017년 5월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63	2017년 7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64	2017년 8월 12일	금속노조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65	2017년 10월 25일	택시지부 전주지회
66	2017년 12월 9일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67	2018년 2월 13일	금속노조 KEC 지회
68	2018년 2월 20일	햇팩 마스크연대
69	2018년 3월 17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0	2018년 4월 17일	레이테크 노조
	2018년 7월 5일	쌍차분향소물품 연대
71	2018년 7월 30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2	2018년 8월 28일	택시지부 전북지회
73	2019년 4월 28일	사드평화회의 소성리
74	2019년 7월 25일	톨게이트 지부
75	2019년 9월 25일	톨게이트지부 김천농성장 물품연대
76	2019년 12월 5일	방한연대 무릎담요, 핫팩
77	2020년 6월 25일	비정규이제그만 코로나긴급행동 지원
78	2020년 10월 7일	코로나19재난 마스크 만개지원
79	2020년 12월 19일	1회 활동가 지원기금
80	2021년 7월 17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81	2021년 8월 5일	2회 활동가 지원기금
82	2022년 3월 7일	고 백기완선생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 서각구매
83	2022년 4월 6일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
84	2022년 6월 28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85	2022년 12월 3일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86	2023년 8월 10일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7	2023년 11월 17일	금속노조 한국유틸칼하이테크지회
88	2023년 12월 2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89	2024년 9월 10일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90	2025년 6월 18일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노조
91	2026년 2월 07일	세종호텔 노조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 연대는 크게 1) 기금지원 2) 기금외 물품지원, 3) 소액지원으로 나눈다. 기금지원 횟수는 대략 5백만 원이상 지원만 포함하며, 기금지원을 결정한 후 기금지원공지와 받는말을 올려 연대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2026년 7월 현재 사파기금의 기금지원 횟수는 91회에 이른다.

그 외 물품연대와 소액지원은, 기금 창립 10주년 당시 집계 기록이 있다.

* 기금 창립 10주년 집계 (2021. 12월 당시)

1) 기금 지원 총계 : 218건

2) 세부

- 기금 지원 : 총 81건

- 기금외 지원(햇팍, 물품 지원) : 총 20건

- 기타지원 (현수막, 추모 장례위원회, 후원주점 등) : 총 117건



사파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신청: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https://sapafund.org/?p=1716>

99%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1만 명, 1만 원, 월 1억 계좌 만들기" 참여
방법

<https://sapafund.org/?p=439>